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¹⁾ (A Theology of the Body)

박정우 후고 신부²⁾

1. 개론

신학이란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논하는 학문이다. 몸의 신학은 인간의 몸, 육체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체를 지닌 존재인 인간과 하느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신앙의 눈으로 육체를 바라보고, 몸을 만드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바로 몸의 신학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은 1979~1984년까지 발표되었으며 인간, 섹슈얼리티, 관계, 혼인과 독신(동정) 등을 다룬다. 충만한 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성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진리 없이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섹슈얼리티가 중심에 있다.

인간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기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중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살고 여자로서 산다.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이든 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적욕구를 느끼고, 자신의 성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며 관계를 맺는다.

인간의 성은 관계성(사랑)에 봉사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의 몸은 성적(Sexual)이라기보다 관계적(Relational)이라고 강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섹스하고 싶은 욕구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섹스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1) "God's Plan for you: The Theology of Body for Young People", David Hajduk, 2006, Daughters of Saint Paul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2) 서울대교구 사제이며 2004년 미국 포담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목국장 역임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의 몸은 근원적으로 관계성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통해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남과 어울리고 남을 받아들이고 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남에게 주라고 불림을 받았다. 요약하면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초대되었다. 우리는 친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키워가라고 초대되었다. 그런 관계를 위해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의 몸은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중요하지만 그것은 남편과 아내사이의 진실하고 지속적인 일치, 친교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섹스는 부부를 하느님과 진실되고 지속적인 친교로 이끌어줘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고, 위격간의 친교, 삼위일체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성적 활동보다 우선이고, 독신의 성소를 받은 사람도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인생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행복추구의 주된 방법으로 쾌락(먹는 것, 마시는 것, 섹스), 권력(명예, 인기, 돈), 덕행(Virtue, 미덕, 고결함, 정직, 가치 있음)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은 인간적 충만함은 온전히 인간적(인간다움)일 때 얻어진다. 즉 행복하고 싶으면 인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덕목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덕목, 가장 충만한 인간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나를 아는 문제로 귀속된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성서의 창세기를 통해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자. 여기에는 성과 남녀 간의 사랑, 결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풍부하다.

3.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28).

1) 하느님을 닮은 존재란

하느님은 사고하고 의지로 선택하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무엇을 하실지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 중 하나는 “사고하고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인간을 인격적 존재(person)라 부른다.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은 ‘지성’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런 능력들은 특별한 가능성을 준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혹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그들은 진실로 자신을 남에게, 다른 인격적 존재에게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선물은 그 본성상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선(상대방을 위해서)을 위해 자유롭게 자신을 주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요소가 있다. 자유롭고(Free), 전적이고(Total), 충실하고(Faithful), 열매가 있는(Fruitful) 사랑이다.

하느님은 삼위일체로서 친교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인간도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도록 창조되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일치하거나 서로 연결될 것이다. 인격적인 통교, 친교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남의 선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 전체적 핵심이다.

2) 인간 몸의 특별함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루아”는 영(Spirit)을 의미한다. 인간은 육체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몸을 지닌 인격체(Body- persons)이다.

과거 어떤 학파는 영혼만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며 육신은 감옥이다(플라톤의 동굴). 따라서 육신은 항상 해롭고 나쁜 것으로 생각했다. 또 하나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물질이므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인생이란 단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었다.

하지만 둘 다 오류가 있다. 가톨릭 신앙에서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있으며 어떤 한쪽만이 아님을 가르친다.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하느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다. 태초에 하느님은 인간에게 불멸의 선물을 주셔서 육신이 영혼의 불멸의 특성을 지니도록 하셨다. 영혼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한 이 선물은 유효했다. 즉 그들이 하느님께 붙어있는 한 하느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은 원죄의 결과였다.

몸의 중요성을 예수님 자신이 증명해 주신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사도신경): 하늘 나라에서 육신을 벗어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육-영의 체험을 할 것이다. 영혼의 평화, 충만함만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도 경험할 것이다.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고 몸이 중요하다고 해서 둘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이 몸을 움직인다. 영혼(지성과 의지) 안에서도 어떤 서열이 있다. 지성이 의지를 움직인다.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살펴보자. 지성은 무엇이 선인지 알고, 의지는 몸을 통해서 행동하면서 선을 선택한다. 즉 몸과 영혼은 함께 간다. 또한 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 지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의 그 사람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선물로 주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혼인적(Nuptial)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타인의 선을 위해서 자유롭게 전적으로 충실하게 열매를 가져오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은 바로 몸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진리가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혼인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뿐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4. 원고독(Original Solitude)

몸을 지닌 존재로서 아담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 즉 자신의 몸을 통해 타인의 선을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온전히, 충실하게, 열매를 가져오도록 사랑해야 한다. 아담만이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할 상대가 없는 것이었다. 잠시 하느님은 아담이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그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

다. 아담이 고독하지 않다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교훈일까?

- 하느님만이 아담의 삶에서 첫 번째이다. 하느님은 시작이요 마침이다.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해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께 우리가 속해있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선악과 이야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랑이 타인의 선을 위해 자유롭게 자신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치셔야 했다.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 때 두 번째 교훈이 시작된다. 즉 “하느님께서 선하다고 결정하신 것을 선택하고, 악하다고 결정하신 것은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 너는 동물과 다르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창세 2,18)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창세 2,21) 동물들도 몸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 존재인 너와는 다르다. 동물들은 무엇이 참되고 좋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동물들은 본능이나 훈련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너처럼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는 못한다. 동물도 널 좋아하고 너도 동물을 좋아하겠지만 서로 사랑할 수 없다. 새나 소와 인격적 친교를 나눌 수는 없다. 너는 너와 같은 다른 사람, 네가 몸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아담은 이제 더 깊은 고독을 느낀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깊이 갈망하게 된다. 아담이 행복을 찾고 존재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닮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줌으로써 가능하다. 아담의 깊은 욕구는 그가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고 느낄 때 하느님께서 그 욕구를 채워주셨다.

5. 하와의 창조 - 원일치(Original Union)

하느님은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을 만드셨다.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 그의 갈비뼈로 협력자를 창조하셨다.

하와가 아담과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아담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아주 다르다. 아담에게 보완적인 존재이며 협력자이다. 하와에게 아담도 마찬가지로 보완적이며

협력자이다. 협력자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해주는 존재이다. 각자 할 때보다 함께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이다. 남성은 남성적인 것, 여성은 여성적인 것이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룬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의 모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다른 선물과 역할을 지니도록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둘의 일치가 단조로운 단음보다 심포니 화음같이 더 듣기 좋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담과 하와가 성적 결합을 통해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 둘을 하느님의 사랑인 성령으로 사랑 안에 일치시키신다.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다. 성부 성자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결합되어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신 남녀의 원초적인 결합이다. 아담과 하와의 인격, 생명은 온전히 결합되어 그들도 바꿀 수 없다.

6. 원알몸(Original Nude)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 2,25).

서로의 몸을 바라볼 때 서로의 인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몸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냥 몸을 바라보는 것은 욕정의 뿌리이다. 인격적 존재를 욕정의 대상으로서의 몸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들을 비인격화시키는 것이다. 그때 동물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더 넓은 의미에서이다. 발가벗은 것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있고 모든 것을 나눈다. 생각, 느낌, 희망, 꿈, 두려움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여기에는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완전히 서로의 선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용당하거나 조정 당한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서로 가려야 할 필요를 느낀 것은 죄를 지은 다음이다. 원죄 이후 그들은 욕망에 찬 눈길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자신의 마음도 이용, 거짓, 배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근원적 축복(Original Blessing): 혼인을 통해 열매 맺음으로 부르심

출산은 창조주가 첫 혼인 커플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이다.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삼위일체적 은유이며 신적 명령이다. “낳아서 번성하라”는 명령이다. 하느님 사랑은 열매를 가져오는 사랑이며, 항상 생명을 주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은 사랑이다. 부부의 결합은 23개와 23개의 염색체가 모여서 한 생명을 이루는 데 공헌한다. 아이는 부부의 사랑이 인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모델로 만들어졌다. 삼위일체는 위격간의 친교이다. 성부 성자의 사랑으로 성령이 생겼다. 삼위일체는 가정의 모델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은 세상 안에 하느님 사랑의 모상으로서, 항상 그 안에 타인을 포함하고 타인에게 생명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사랑처럼 그것은 결코 의도적으로 생명을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부부의 사랑의 주된 태도는 새 생명을 향한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며, 항상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부모와 자녀들은 더 많은 사랑의 기회들을 갖는다. 대가족 안에서 사랑 받거나 보살핌 받으려면 모두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즉 각 식구들이 팀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인다. 부부는 배우자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들의 선을 위해 자신을 준다. 그 결과 모든 가족들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더욱 완전하게 매일매일 배우게 된다. 마더 데레사는 사랑은 집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가정을 기도의 학교라고 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행복을 자아의 진실한 선물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즉 하느님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가족을 행복의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출산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와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창세 4,1) 하느님은 생명의 존귀하신 주님이시다. 성령이 생명이 주인이자 생명을 주는 분이시고 부부는 하느님 창조에 협력하라고 불렸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친-창조(Pro-create)이다. 그렇다고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보다 결혼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가질 자격이 없도록 판단이나 저주받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본질상 유한한 세상 안 삶의 일부분이다.

8. 원죄(Original Sin) (창세 3장)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창세 3,1.3-6)

여기서 사탄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원고독 속에서 행하신 교육을 잊게 만든다. 즉 인간은 사랑하고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 하느님 밖에는 다른 누구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잊게 만든다.

사탄의 방법은 교묘하다. 들키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짝 비트는 표현을 쓴다. 사탄은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느님의 법을 떠나서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의도와 그리고 만일 그들이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고 믿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가 허락된 것이 대부분인데 허락되지 않은 것만 집중하게 만든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은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를 허락하셨다. 하느님이 금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나무를 먹으면 위험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잊게 만들고 사탄이 친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그분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부모보다 친구와 어울리게 된다. 그러면서 부모가 인생 경험이 더 많고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되고

자기 결정을 더 신뢰한다. 사실 부모님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기억을 없애는 것이다. 그들의 순수성을 잃게 만들고 하느님을 의심하고 사탄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 돼, 네 자신이 돼, 저항하고 네 삶을 스스로 통제해. 아버지가 너 대신 모든 결정을 하시도록 그냥 있을 거야?”라고 사탄은 말한다.

이제 동기가 생겼고 핑계만 남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생각할 틈 없이 즉시 따먹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본능과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 하느님의 마지막 교훈이 무시되는 것이다. “너는 동물과 다르다.”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를 부여받았기에 행동하기 전에 사고한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느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이다. 자신이 하느님 자리에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죄, 고통, 죽음이 인간 역사에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원 순수함을 잃었다. 그것과 함께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충만한 삶을 위한 기회도 함께 잃었다.

9. 원죄의 결과

우리의 선택은 결과가 따른다. 전통적으로 죄는 “하느님과 그분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 의미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이 친교라면 죄는 하느님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분리이다.

따라서 첫 번째 분리는 남자와 여자 둘만이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우선 하느님이 금지한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은 절대적 자유와 독립을 원했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신만의 규율을 만들기로 선택했다. 하느님은 “네 뜻대로 해봐라”라고 하시며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같다.

원죄를 지으면서 가졌던 ‘하느님처럼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은 결국 떨어져 갔다. 사실 원죄 이전에 하느님처럼 살았었다.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 금지된 과일을 먹었다가 실제로는 하느님과 다른 존재로 되어버렸다. 원죄로 인간의 본성은 질서가 무너졌다. 영혼(지성, 의지)과 몸을 부여받았는데 지성은 선을 알고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영혼은 몸으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질서는 영혼이 하느님과 친교를 맺은 상태에서만 존재한다.

사탄의 반란처럼 아담과 하와의 반란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인격 안에 혼란을 가져온다. 지성은 더 이상 선한 것에 승복하지 않는다. 의지는 더 이상 지성에 복종하지 않는다. 몸은 더 이상 영혼의 이끌에 따라가지 않는다. 죄가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고, 인간 본성이 고장나게 한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창세 3,10)

이것 역시 어떤 무질서를 보여준다. 아담의 영혼과 몸의 관계가 손상되었다. 하느님의 창조이기에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는다. 선한 것을 알아도 선택할 능력이 없다(로마 7,19.22-23 참조). 하느님처럼 자유롭고 싶지만 영혼은 본능의 노예가 되고, 육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더 동물처럼 되어버렸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셈이다.

죄의 결과는 무질서 외에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즉 죽을 운명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죽음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창세 3,7)

무슨 뜻일까? 아담과 하와는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욕정에 정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인격을 보지 못하고 몸으로만 본다. 이제 욕정으로 남과 세상을 왜곡되게 보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인간됨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주는 것이라면 욕정은 나를 위해 너를 취하는 것이다.

아담은 하와의 인격을 보지 못한다. 이제 하와의 몸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부끄럽다. 하와도

아담을 통제하려 한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기에 부끄럽다.

원죄 이후 부부행위조차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된다. 부부행위는 여전히 선한 것이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태초에 의도하셨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욕구, 감각은 그대로 있지만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다. 인격의 일치가 몸의 일치 안에서 더 이상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진정으로 인격적 일치를 갈구하지만 이기적인 동기들이 온전한 자기 증여를 방해한다. 특히 성서는 여성이 더욱 이러한 친교의 부족에 영향을 받고 관련된다는 것, 그리고 더욱 어떤 것을 갈망한다고 전한다.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창세 3,16)

남자들은 인격적 일치를 육체적 일치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자들은 여전히 무의식중에 진정한 인격적 일치를 갈망한다. 사랑과 섹스를 혼동하기 쉽다. 이런 혼동은 이기적인 조작의 원천이 된다. 남자들은 섹스를 위해 사랑하고, 여자들은 사랑을 위해 섹스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남녀가 원래 상호보완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지만 근원적인 보완성이 역사적 갈등이 되어버렸다. 태초의 상태가 끝나고 양성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녀관계와 성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여성해방, 피임, 낙태... 하느님의 원초적 계획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한편 수치심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것은 몸의 혼인적 의미를 보존하도록 시도한다. 우리의 몸은 타인에게 주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등으로서 우리 몸을 보게 도와준다. 겸손함, 정숙함의 덕은 인격을 보호한다. 겸손은 인격을 인지하도록 도와준다. 옷을 입음으로서 생식기에 대한 초점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으로 돌리게 해서 서로의 영혼을 보게 한다.

10. 하느님의 원-계획의 회복

현대의 주류 문화에서 왜곡된 메시지가 대중문화 안에서 확산되고 생명, 사랑, 결혼, 성을 위한 하느님의 원초적 계획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뱀이 첫 인간들을 교묘히 유혹하듯이 여전히 세상에서도 그렇게 유혹한다. 성적인 죄가 별로 대수롭지 않고 큰 해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문화는 성이 범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제대로 말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성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 있다. 성이 범람하는데 가치는 떨어진다. 오늘날은 아담과 하와 때처럼 전반적인 섹스의 핵심을 잃어버렸다. 왜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 육체와 영혼을 지닌 인간의 의미가 뭔지, 부부가 성적 결합을 통해서 표현하며 생명에게 열려있는 주는 인격적 친교가 무엇인지 잃어버렸다.

바리사들이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태 19,3-6.8)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원래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몸을 통해 자유롭게, 전적으로, 충실하게, 열매를 가져오는 사랑을 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죄가 그런 능력을 망가뜨렸다. 그런 너희들의 한계를 고려해서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여전히 갈구한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정의와 선을 기본적으로 원한다.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을 찾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다. 욕정과 통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위장한다. 이기적인 동기와 도덕적 상대주의가 선과 정의를 타락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과 종교를 우리의 환상, 변덕에 맞추거나 우리의 편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태초에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세 행복과 영원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 행복하기 위해 온전히 인간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온전히 인간적이 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될 때 의도된 대로 하느님의 모상이 될 필요가 있다.
3. 하느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느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필요가 있다.
4.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몸을 통해 하느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죄로 우리 본성에 영향을 준 결과

1.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일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2. 따라서 죄는 우리가 창조될 때 의도된 하느님의 모상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3. 따라서 죄는 우리가 온전히 인간적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 따라서 죄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법을 떠나서 행복을 찾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행복도 하느님도 잃었다. 이것이 죄의 역설이다. 충만함을 약속했지만 공허를 가져온다. 자유를 약속했지만 노예상태를 가져온다. 천국을 약속했지만 지옥을 가져온다.

원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건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불행뿐 아니라 훼손된 본성을 전해준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알려진 조건, 무질서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아담 새로운 하와 외에는 여기에 영향 받는다. 하지만 하느님은 벌을 주면서도 그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인류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신다.

11. 구세주

하느님의 원-계획을 회복할 분이 필요하다. 인간은 죄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하느님이 원래 정하신 규칙(십계명, 참된 행복)에 대해 살아갈 새로운 인류(세례 받은 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담(예수)과 새로운 하와(마리아/교회)가 필요하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No로 말미암은 원죄의 상태가 예수, 마리아의 Yes로 회복하게 된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셨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셨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행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몸을 바치고,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몸을 바쳤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하느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그들의 몸과 영혼의 재결합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부활 승천.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죽음을 가져다주었지만, 예수와 교회의 결합은 생명과 본성의 회복을 가져다주었다.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로서의 모델이 된다.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을 준다. 예수를 간직했던 마리아는 교회의 모델이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 곧 교회는 새 하와이기도 하다.

성령은 세례·견진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협력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느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하고, 우리의 의지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선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 그리스도인의 혼인

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선을 위해 자유롭고 전적으로 자기를 주는 것이며, 그를 통해 그들은 배타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
2.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기로 약속한다.
3. 말로 표현된 서약이나 상호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4. 성적 결합을 통한 몸으로 그 혼인이 완결되며, 이는 성령께서 부부를 하나로 묶어 한 몸이 된다는 보이는 표지이자 수단이다.
5. 혼인 서약(Covenant)은 인간끼리 행해지는 계약(Contract)과는 다르다. 서약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6. 인격적인 통교이다.
7.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향하며 따라서 항상 생명의 전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예”라고 대답할 때 이 요소들에 대한 동의다. 조건부 결혼은 안 된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서약이다.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